

제9강 성경의 맥잡기-왕국시대

(사무엘상하,열왕기상하,역대기상하)

7대양을 향해할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나침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나침판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7대양을 향해할 자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 즉 전적인 자유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에 따르는 속박을 함께 짊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속박을 짊어지면, 동시에 그에 따르는 자유를 함께 누립니다.
우리는 첫솔로부터 자유를 얻든지, 충치로부터 자유를 얻든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자유는 없습니다. 전적인 자유는 댓가를 치를 때, 찾아 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전적인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라와 전쟁 수행 방법에 대해 그들에게 내려주신 지침을 무시할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경제 군사 문화적 번영을 누릴 자유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왕국시대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불복이 심한 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로운 왕이 왕국을 통치할 때는 번성 번창했으나, 불의한 왕이 권좌에 오를 때에는 쇠락했습니다.
왕국시대는 4가지 주요 시기가 있습니다.

①통일왕국(사무엘상하) ②분열왕국(열왕기상) ③북이스라엘왕국(열왕기하) ④남유다왕국(열왕기하)

1.통일왕국 : 새로운 군주제(사무엘상하)

인간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왕국시대가 싹을 틔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주변국가를 두려워한 나머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 베냐민 지파중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불의한 왕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권좌를 물려 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계승한 다윗은 비록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통치아래 번영을 누렸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됩니다만,
주님은 은30냥에 팔아버린 가룟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영적 고통에서 정신적 고통으로....그리고 치명적 육체적 고통의 정점인 자살을 합니다.

사울은 훌륭한 왕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으므로 불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자가 많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의로운 왕이 됩니다.

2. 왕국의 분열 : 지혜왕 솔로몬의 타락과 내란 (열왕기상)

다윗 사후, 왕위를 계승한 사람은 솔로몬왕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기에 재위 초기에는 의로운 통치를 베풀었으나, 노년기엔 점점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영적 방황과 과중한 왕국건립 및 세금부담으로 그의 사후 내란이 일어납니다.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세금부담 탕감을 주장한 열지파가 연합한 북왕국 이스라엘로, 세금부담 강화를 주장한 유다지파가 베냐민지파와 연합하여 구성된 남유다 왕국입니다. 북쪽 열지파는 '이스라엘'의 국명을 그대로 사용했고, 남쪽 두지파는 큰 지파의 이름을 좇아 '유다'라 했습니다.

솔로몬의 무거운 세금 아래 고통 받던 이스라엘은 그 아들 르호보암이 세금을 경감하여 선정을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못하게 노인들의 진언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제안을 따라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이 일로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르호보암은 18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통일왕국을 유지하려 했으나 선지자 스마야의 말(왕상12:22)을 따라서 포기합니다. 왕국분열 이유를 세가지로 정리합니다.

- 1) 유다 지파가 강성해져 지파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른 지파들이 소외시킨 것입니다.
- 2) 애굽의 왕 시삭이 솔로몬의 통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후원하여 솔로몬 왕국에 반체제 세력을 강화시킴
- 3) 르호보암의 그릇된 야망과 백성들의 불신

3. 북왕국 이스라엘 : 불의한 왕국 (열왕기하)

왕국을 분열시킨 내란으로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는 쿠데타로 시작된 불의한 통치자였고, 그의 뒤를 이어 북왕국 이스라엘 19명의 왕들은 마찬가지로 불의했으며, 결국 250년 동안 쿠데타 역구테나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므리 왕조를 세우셨고,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해 예후왕조를 세우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앗수르제국을 일으키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패망(BC721)시키셨고, 모든 백성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이었기에 에브라임 사람이라 불렸으며, 아합왕때,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김으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는, 앗수르의 포로, 메데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기를 격으며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렸고, 이방인과의 혼혈로 멸시를 받았으며, 다시 회복되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4. 남왕국 유다 : 일관성 없는 왕국 (열왕기하))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지만, 그도 역시 불의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북왕국 만큼 불신앙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신앙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남왕국 유다 400년동안 20명 전체 왕들중, 의로운 왕은 8명 뿐이었습니다.

대하18:이하를 보면, 북왕국 오므리의 손녀, 아합왕의 딸이 남왕국 여호사밧의 며느리, 여호람의 왕비로 들어와 남편 여호람과 자손들이 북왕국 아합의 집처럼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히스키야와 요시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왕들이 불의한 길을 걸었으며, BC587년 바벨론 제국 느브갓네살 왕에게 패망하고 예루살렘과 성전도 훼파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유다의 지도자 제사장 기술자 등등 포로민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영역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삼하10:19)

■ 다윗 용사의 출신지
(삼하23:8~39)



